



중국 간편식 시장의 건강화

코로나19 안정 후 중국 건강 산업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중국에서의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 대맹중앙상위(台盟中央常委), 취안저우시정협 부주석(泉州市政协副主席) 루어사밍(骆沙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료되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하며 소득 수준별 건강산업 소비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 잠재력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대건강산업(中国大健康产业)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건강관리 및 생명보호에 대해 자각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대건강 산업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환경적, 도덕적 등 방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건강분야 서비스 소비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루어사밍(骆沙鸣)은 “중국 건강 산업을 세분화하면 의약산업, 건강양로산업, 의료산업, 보건산업, 건강관리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국 건강 산업은 8만억 위안(한화 약140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잠재력이 거대하다”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안정 후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높아져

춘절 이후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서 간편식 및 즉석식품의 시장의 매출은 폭등하였다. 중국식품 산업 분석가 주단평(朱丹蓬)의 분석에 따르면 2~4월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소비행위 및 소비사상이 많이 변화였으며 특히 소비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업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건강식품의 전문화와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상품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간식의 결합은 향후 새로운 트렌드로 분석된다.



▲ 징둥(京东) 온라인 쇼핑몰의 간편식품



▲ 중국 간편식 주도 업체 브랜드



▲ 량핀푸즈(良品铺子) 일부 인기상품



▲ 백초미(百草味) 일부 인기상품

<2020년 중국 천연 건강식품 업계 시장전망 및 투자연구 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건강 의식이 강화되면서 2022년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00억 위안(한화 약 3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한 간식을 제조하는 것은 현재 소비 트렌드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간편식 업체 간의 경쟁에도 품질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징둥(京东)의 2020년 1분기 판매 데이터를 보면 우유, 생수, 견과류 매출액이 2019년 동기 대비 각각 300%, 200%, 100% 상승하였고 만두 같은 냉동식품은 동기 대비 7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은 간편식 및 건강식품 관련 기업의 상품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 경쟁의 후반전

현재 중국의 간편식 업계에는 '싼즈송슈(三只松鼠)', '량핀푸즈(良品铺子)', '백초미(百草味)' 3대 브랜드가 가장 크게 활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간편식 업계 내 선두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케팅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주요 동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시장점유 쟁탈전으로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편식 선두 기업 간의 경쟁으로 해석된다.

량핀푸즈(良品铺子)는 2월 24일 온라인에서 상장 소식을 발표하였다. 2020년 우한시 첫 번째 IPO기업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상장이익을 하였다. 9시 30분 개장 후 주가는 17.14위안/주(약

3,000원/주)으로 44.03% 상승 후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며 시장 가치가 68.7억 위안(한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올랐다. 3월 10일까지 량핀푸즈(良品铺子)가 상장된 12개 거래소의 모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가치는 196.09억 위안(한화 약 3조 4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량핀푸즈(良品铺子) 상장 공포 전날, 즉 2월 23일에 백초미(百草味)는 50억 위안(한화 약 8,750억 원)을 펍시코에게 100% 현금으로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선두기업들의 움직임의 뒤에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대한 간편시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중국의 간편식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12%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 중 견과류, 빵류, 육포 등 식품의 성장이 눈에 띈다. 2020년 중국의 간편식 시장 규모는 3만억 위안(한화 약 52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3~5년간 간편식은 매년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

중국 정부의 대건강산업 추진과 중국인들의 건강 의식 강화로 미래 간편식 시장은 더욱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 중국 내 간편식 선두 기업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지금껏 중국의 간편식은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를 보았지만 정부에서 건강산업 발전을 공포한 후 품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 품질 장점을 발휘하여 면역력 상승 등 건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